

# “반역사세력 반드시 제압... 진짜 대한민국 만들자”

**이재명, 전남서 '경청투어' 마무리**  
화순·강진·해남·영암서 지지 호소  
“국가 모든 역량, 국민 위해 쓰여야”  
“오월광주, 함께 사는 진정한 공동체”  
국힘에 “내란 동조... 석고대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남도 지역에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투어를 ‘남도문화벨트’로 명명하고 화순·강진·해남·영암군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화순을 찾은 이 후보는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 받는,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만을 위해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관군과 싸워 이긴 황토현 전투 승리의 날로,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꿨던 동학농민군이 첫 승리를 한 날”이라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그런 대동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남도문화벨트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화순군 화순읍에서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인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1980년 5월에 모든 군·경·치안 인력이 다 철수한 후 열흘 동안 아무런 절도사건·폭력사건 없이 주먹밥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잠시 느끼지 않았나”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국민이 국가이고 국가가 국민인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우리가 12월3일에도 싸워 이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과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 일정으로 강진시장을 찾은 이 후보는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이 ‘실용주의자’임을 강조하며 정약용 선생의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많이 잡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한 위대한 학자”라며 “정약용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 당시 머물렀던 곳인 ‘사의재’에 방문한 이 후보는 “정약용 선생이 연구에 있어서는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현대식으로 하면 좌우나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뜻”이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용적인 학문 연구에 벽이 없듯이, 국정 운영에도 편가르기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남군민광장에서 군민들과 만난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시작인 땅끝 해남 땅에서고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만큼 해남 군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투표와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과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암 독천낙지거리 등지에서 군민들을 만난 이 후보는 경청투어가 끝난 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 “영터리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긴 하나, 선출된 후보가 됐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동조 세력인 국민의힘, 내란을 비호하는 후보가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설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던 내란 행위에 대한 석고대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접경벨트’를 시작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 벨트’, 영주부터 제천까지의 ‘단양팔경벨트’, 양평과 예산 등 중남부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한 ‘국토중주’, 경주에서 하동으로 이어지는 ‘영남신라벨트’ 등 전국 51개 시·군을 방문해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오지현 기자

## 선관위 “유권자도 전화·SNS 후보 지지 가능”

가로·세로 25cm 홍보물 소지 가능  
답페이크 영상·후보 비방 등 금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공식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활용한 대규모 인쇄물 홍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전달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 8만곳에 부착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부를 각 가정에 발송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시민들이 11일 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조선대학교 장미공원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양배 기자

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또는 지정 1인),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

약서도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정

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을 이용한 정책 홍보가 금지돼 기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확성장치는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영상은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할 경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은 타인이 개최한 속내모임에도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정당은 일간신문, 인터넷언론, TV·라디오에 광고를 게재하고 후보자와 지정 연설원은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 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시기를 포함해 8회 이내로 제한된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허용된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답페이크 영상 제작·유통,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라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 ‘오늘부터 공식 대선 선거운동’

1면서 계속 당초 출마를 선언했던 김재연 진보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출마를 포기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광주·전남 정치권도 일제히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선대위 구성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핵심 당원, 지지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연다. 이번 선거운동에서는 대규모 집중 유세를 지양하고 시민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는 ‘밀착형 유세’에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시당 선대위는 6개 지역위원회 선대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되며, 등록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3000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같은 날 오전 10시 순천 아랫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

고 첫 거리 유세에 나선다. 전남도당은 지난 9일 ‘용광로·포용·경청’을 기조로 선대위를 출범시켰으며, 지방의원과 핵심 당원, 교육계·종교계·농어민·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850여 명이 참여해 범도민 선거운동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0일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김정현 시장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주도하며,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광주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김화진 총괄선대위원장을 필두로 이날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12일에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선거운동원 100여 명이 전남 각 지역에서 본격적인 유세 활동을 시작한다.

정의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민주노동당도 12일 오후 1시30분 5·18민주광장에서 권영국 후보의 광주·전남권역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다.

## 제21대 대선 투표율 끌어올리자... 광주 일선 자치구 전방위 홍보

온·오프라인 활용 홍보 활동 나서  
교통약자 셔틀버스·챗봇 등 추진

광주광역시 일선 자치구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투표 독려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역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기발한 문구를 현수막으로 제작해 육교, 간선도로 등 주요 거점 30개소에 게시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과 SNS 릴레이 투표 독려 챗봇, 선거 홍보 영상을 활용해 홍보물을 공유하는 등 젊은 층을 겨

냥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독려할 방침이다.

서구도 투표 참여 유도를 위해 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최근 개인 SNS를 이용한 릴레이 챗봇에 나서기도 했다.

남구는 지난 9일부터 청사 앞 미디어월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송출하고 있다.

북구는 투표율 저조 지역 집중 홍보, 셔틀버스 운행 등 종합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투표 당일인 6월 3일까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선다.

지난 대선 투표에 참여가 저조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기류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등 교통편이 불편해 투표를 포기하는 주민이 없도록 투표 당일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동초등학교, 광주호수생태원 지구센터 등을 거점으로 하는 맞춤형 노선을 따라 투표소별로 셔틀버스가 왕복 2~5회 운행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번 선거에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협력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지역 상인회와 개별 상점에서는 투표 참여를 인정한 시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투표 참여 높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승우 기자